

## 200자 안내

### 삽다리를 아시나요

조영남 지음

60년대 말 데뷔곡 「달라일라」로 일약 스타로 부상한 저자가 가수 겸업 MC로서 유명세를 치르는 동안의 소탈한 이야기를 엮었다. 그의 예술적 재능과 생활방식의 자유로움이 재미를 더하고 있으며 “삽교”라는 충청도의 지명을 “삽다리”로 고쳐 불러 그곳에서 살던 가족이나 이웃들에 대해 저자만의 독특한 애정표현을 하고 있다. 노래와 그림, 종교와 사랑 사이를 넘나드는 자유분방한 화법이 흥미를 끌며, 내용에 어울리는 삽화도 직접 그려 읽을거리와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

리을/A5신/238면/4800원

### 맵 오브 휴먼 하트

빈센트 워드 지음/김현숙 옮김

북극의 광대한 자연과 2차 대전의 치열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천대받는 혼혈인들의 비극적 삶과 사랑을 그려낸 장편소설. 자신의 뿌리를 거부하고 백인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던 혼혈 인디언 ‘아빅’은 우연히 ‘알버틴’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인디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알버틴은 혼혈인이라는 것 때문에 천대받기 싫어서 아빅의 사랑을 거부한다. 결국 두사람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는데, 어느 세계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남녀 주인공의 삶에서 방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산호/A5신/342면/5800원

### 달빛초가집

류병영 외 지음

평생을 자연과 벗삼아 살다가 고인이 된 아버지의 한시와 현직 공무원인 아들의 현대시가 한데 어우러진 부자시집. 선친의 뜻을 받들어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가족간의 연대감을 견고히 하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가족운리의 붕괴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비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 시집은 가족들간의 애정을 새롭게 확인시킨다.

지혜의샘/A5신/180면/3500원

### 섭씨 99도로 너를 사랑함

최윤희 지음

카피라이터로서 시사지와 월간지 등에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저자의 산문집. 직업인이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여러가지 갈등요소들을 이야기의 소재로 삼고 있어 소설에 못지않은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꿈과 희망 혹은 좌절과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들과 일상적인 삶에 기초한 인간관계들이 소박하게 혹은 유머러스하게 그려져 있다. 사소한 일상에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에 접근하며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어 한순간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돈뽕/A5신/324면/5000원

### 霸王別姬

릴리안 리 지음/김정숙 외 옮김

중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경극으로 패왕과 우희의 이별을 담고 있는 고전극. 모택동 정권 당시 문화대혁명이 번지면서 봉건적 잔재를 담고 있다고 하여 공개적으로 비난당한 바 있다. 경극에서는 한번 배역이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데, 남자인 소석두와 소두자는 남녀 주인공역을 맡아 열연하던 중에 우정을 뛰어넘어 동성애로 발전하게 되고 그 사이에 국선이라는 기생이 끼어들어 소석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들의 삼각관계는 일제침략, 중국공산화, 문화혁명으로 치닫는 중국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다.

빛샘/A5신/412면/6000원

### 살아있는 무덤

어운순 지음

현재 캐나다 체류중인 작가가 서울에서 캐나다로 가던 기내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소설화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로 이어지는 유신체제하의 암울하던 시대에 운동권에 투신한 서울대 철학과 학생이 모진 고문 끝에 식물인간이 된다. 가해자인 고문 경찰관의 누이동생 해강은 오빠의 일기를 읽고 피해자인 명우를 찾아간다. 폐인으로 11년간 누워 있던 그를 지순한 사랑으로 간호하지만 소생한 명우는 해강의 사랑을 받아들일 거부하고 신부가 되기 위해 떠난다는 줄거리.

햇빛/A5신/332면/5500원

### 주님의 여성이 되려면

정석기 지음

뉴욕의 미주 고은교회 담임목사인 저자가 “여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오해가 성서적으로, 그리고 신학적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되길 비는 마음”에서 쓴 여성신학서. 신·구약에 나타난 여성상과 신학적 연구, 여성안수의 문제 및 교회여성의 의식화 문제가 주 연구과제. 기왕의 여성신학 관련자료 목록이 권말부록.

나눔사/A5신/228면/4000원

### 이건희 이야기

강승구 엮음

최근 아내와 자식을 제외하곤 모든 걸 바꿔야 한다며 質경영·입체적 사고·국제화·복합화를 내세우며 ‘이건희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신경제학과 인생철학을 정리한 책. 신경정철학과 어록에 이어 “앞으로 5년이 경제 성패를 좌우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터뷰 기록이 함께 실려 있다.

미래미디어/A5신/236면/4500원

### 맘미스파 (1·2)

렌 다이튼 지음/김관수 외 옮김

중남미 스페인령 가이아나를 배경으로 부패한 정부관리들과 이에 대항하는 반정부 좌익 게릴라인 맘미스파 조직원들의 투쟁을 그린 소설. 남미에서의 정치, 경제적 이권을 둘러싸고 부패한 정부를 지원하면서 반정부 게릴라와 교묘하게 협상을 벌이는 미정부의 중남미정책을 실감나게 소설화했다. 폭발물 전문가인 ‘엔젤 페즈’가 가상의 국가 가이아나에 도착하면서 시작되는 이 소설은, 코카인 밀매를 놓고 벌어지는 미국의 마피아 조직과 남미의 코카인 재배업자간의 대립양상을 흥미있게 다루고 있다.

인간사랑/A5신/각 344면 내외/각 5000원

### 이슬람 - 그 역사적 고찰

해밀턴 깃 지음/최준식 외 옮김

이슬람에 대한 견해를 크게 나누면, 종교경험으로 보는 “호교론적 시각”과 명징한 분석도 없이 “열등한 종교”라고 얕잡아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 책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개설서이다. 원저자인 「모하메다니즘」을 35년이 지난 지금, 이슬람의 ‘역사적 접근’과 새로운 이슬람 국가로 등장한 파키스탄 등 여러가지 변화를 참작하여 그 내용을 수정 분석했다. 주로 이슬람의 신학적 내용과 철학, 사상을 소개하고 현대사회에서 이슬람이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문턱사/A5신/288면/6500원

### 꾸지람과 칭찬

노구치 하루치카 지음/송대잔 옮김

이미 고인이 되었으나 整體法的 창시자인 저자의 사상을 다룬 내용. 정체의 근간은 우리 몸의 자연성을 발견하는 것이며, 방법에는 인간의 특성을 파악하는 체벽연구와 조용한 호흡법인 행기, 그외에 활원운동과 우기가 있음을 알려준다. 꾸지람과 칭찬이 인간의 마음속에 흡수되도록 하여 무의식 중에 자신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자발성을 키워주어 정체법을

소화하도록 유도한다.

수학사/B6/224면/3500원

### 그날

고승우 지음

「말」지 편집국장을 거쳐 현재 「한겨레 신문」 여론매체부 편집위원에 재직하고 있는 작가가 통일 이후를 가상해서 그린 장편소설. 우리의 시조설화인 환웅설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곰의 눈을 통해 통일조국의 미래를 점쳐보는 작가는 서문에서 “어설뜨게 꾸민 이야기들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통일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기만을 바란다”고 밝힌다. 학민사/A5신/270면/4800원

### 사계1

스티븐 킹 지음/김진준 지음

전 3권 중 “봄과 겨울이야기”편으로, 봄은 인간생명의 근원이며 자유를 상징하고 있다. 이 소설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얘기하고자 젊은 나이에 감옥생활을 했던 ‘레드’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자유에 대한 열망이라곤 전혀 없던 그가, 거의 초인적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되는 ‘앤디’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갈등을 하게 되고 뛰어난 두뇌를 이용하여 쇼갱 감옥에서 탈옥한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란 감옥에서의 타성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유혹에 대한 거부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우/A5신/290면/5300원

### 놀라운 창조이야기

듀안 T. 기쉬 지음/창조과학회 옮김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주의 역사론을 주장한 책.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가 우연한 합성물에 의해 시작됐다는 설에 대해 성경의 해석을 들어 반론을 제기하고, 별과 지구, 인간과 모든 생물들의 창조론을 역설한다. 학계에서 화제가 되는 공룡화석이 진화론을 지지하는 증거물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는 주장 등이 흥미를 끈다.

국민일보사/A5/144면/6000원

### 설교의 시급한 과제

J.E. 아담스 지음/이길상 옮김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인 저자가, 25년간의 설교 경험을 토대로 교인들에게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새로운 설교학에 대해 언급한 책. 목회자의 설교에 회의를 느끼는 교인은, 교회는 물론이고 그리스도까지 떠나게 되므로 설교란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가장 큰 문제로 신학교의

빈곤한 교육과 목회자의 소극적 타성을 지적하고, 이론과 실재를 통한 새로운 설교의 형태를 제시한다.

아가페 / A5신 / 188면 / 3500원

### 원숭이가 되어버린 우등생

홍성완 지음

지난 87년 渡美한 한 한국의 유학생이 소수 민족이어서 겪은 갖은 고초와 수모,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한 이야기를 일화 중심으로 써 내려간 책. 한국에서는 우등생으로 자타가 공인하던 그가 한국에 대해 철저히 무지한 미국인들에게 마치 원숭이 취급을 받으며 느꼈던 분노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굳은 의지가 한편의 휴먼 드라마로 읽힌다. 피상적으로만 알기 쉬운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데도 도움을 준다.

쟁기 / A5신 / 256면 / 4800원

### 격월간지

### 녹색평론 (93년 9-10월)

[논문] ▲현대문명의 위기와 전환기의 세계관(김지하) ▲농민문화의 전통과 생명운동(임재해) ▲看過의 시대는 계속되는가(장경섭) ▲자연과 인간이 하나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아마시기가이(유정길) ▲농업문화의 위기와 美術(이주현) ▲가이아의 얼굴(프리먼 다이슨) ▲고등교육과 고향지키키(웬델 베리) ▲세계 환경위기의 현황(레스터 브라운) ▲脫成長社會로 가는 시나리오(후르사와 코유)

[시] ▲일 외 2편(김용택) ▲제초제와 봄 외 1편(이상국) ▲移農民을 기다리며 외 2편(이중기)

[서평] ▲어이할 수 없이 시인이 여기 있다(고은)-김영무 시집 「색동 단풍 숲을 노래하라」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리얼리즘의 길(김운태)-구중서 지음 「자연과 리얼리즘」 ▲자유를 위한 순례(박스 앤더슨)-헨리 데이빗 소로우 지음 「월든」

녹색평론사 / A5신 / 160면 / 3300원

### 계간지

### 오늘의 문예비평 (93년 가을)

[특집] 현대계의 우리문학: 소설/변화된 현실과 소설의 지형(황국명)/상업적 대중소설의 이데올로기적 기반(황순재)

[비평이론] 정신분석: 언어·욕망·자본/자크 라캉: 파라독스의 논리와 무의식의 회귀설(김보현)/'반 외디푸스'의 프로이드 맑스주의(박성수)

[문예사조] 고전주의/고전주의(김옥수)/한국사의 고전주의: 정지용과 조지훈(송희복)

[비평·논문] 물음과 믿음사이에서, 이동하의 비평세계(최진삼)/이야기, 변형된 욕망의 한 모습(김해연)/문명에서 자연으로, 그 시적 변용의 세계, 이하석론(허상문)

[연재번역] 드라마에서의 시간(P. 퀴즈, 조상용)

책읽는사람 / A5신 / 256면 / 4000원

### 문화과학 (93년 가을)

[특집] '육체' ▲육체노동, 그 자본주의적 의미(김진균) ▲소비문화 속의 육체(마이크 페더스톤) ▲육체, 무엇이 문제인가? (심광현) ▲미셀 푸코에 있어 신체와 권력(이정우) ▲동서의 철학적 전통에서 본 육체(유초하) ▲육체의 관리와 문화효과(이동연) ▲여자의 눈길(이성옥) ▲신경성 거식증(헤리엣 프라드) 노출-해체된 육체의 이미지(이득재)

[문화현실] ▲패션, 그 지배의 경로(손자희) ▲서편제, 노이즈, 김소월(이영미)

[기획] ▲이데올로기는 주체를 구성하는가? (이영재) ▲「그대 안의 논쟁」: '사건'인가, '구조'인가(류제홍)

문화과학사 / A5신 / 288면 / 6000원

### 철학과현실 (93년 가을호)

[특집] 사회개혁과 시민의식(황경식)

[특집논평] ▲법질서 확립이 과연 열쇠인가(한상진) ▲개혁의 부담과 전망(김근태) ▲개혁논의, 역사적 접근이 요구된다(서경석) ▲행동의 연습과 체험의 중요성(문용린)

[철학특강] ▲스피노자, 자기보존을 위한 철학(강영안)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김형효)

[논문] ▲여성적인 도덕 관점과 바람직한 인류공동체(허라금) ▲경쟁의 미학, 현대적 삶의 원류를 찾아서(김주성) ▲인공지능과 철학의 이중협주곡(박성수) ▲행복의 조건(김태길)

철학문화연구소 / A5신 / 358면 / 5000원



# 35년이 흘렀습니다.



# 다시 35년이 흐를 것입니다.

1958년 4월 출판인들은 협동조합운동의 이념 아래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형 출판 유통기구로서 한국출판협동조합이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푸른 이념의 빛이 바래지는 않았으나, 그 나무가 바람대로 자라나고, 다음 세대의 출판을 위하여 서늘한 그늘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만은 없겠지요. 앞선 35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내일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35년은 흘러 갈 것입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원화공급이 있습니다.**

### ■ 일원화 공급 참여 출판사

- 경연사 • 과학과 예술 • 광문각 • 극동문화 • 기다리 • 대웅출판사 • 대훈사 • 모문당 • 보성사
- 법률신문사 • 사회문화연구소 • 서광사 • 성균관 • 성음각 • 양문각 • 엘멘출판 • 열화당 • 오덕원
- 요가선 • 유림문화사 • 음악예술사 • 이론과 실천 • 전통문화연구회 • 전파과학사 • 정문출판사
- 중원문화 • 증권서적(출판부) • 창조사 • 태성출판사 • 하남출판사 • 한국산업경영연구소 • 한국 어학
- 개발원 • 한국외대(출판부) • 향학사 • 현대미학사 • 현상과 인식 • 흥문관 • 화평사 • 한겨레
- 신문(출판국) • 한국문화사 • 한림원

### ■ 한국출판협동조합 일원화 공급위원회

연락처 : <공급부> 전화 716 · 5616~9 팩스 716 · 2995, 716 · 2999  
<총무부> 전화 716 · 5621~3